

종신서원 10 년 이하 회원들의 국제 모임에 관한 소식

삶을 깊이 건드리는 체험은 쉽게 적을 수 없습니다. 실로 저희는 엄청난 여행에 비유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길에서 많은 얼굴들 만납니다. 바로 우리 수녀님들의 얼굴입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것은 친교를 사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친교는 우리 노력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에서 우리는 다른 장소로 가기 위해 어떤 장소를 떠나야 합니다. 저희는 일주일 동안 그리스도인 삶과 우리 카리스마의 근본 토대를 더욱 깊이 수 있었었습니다. 단순히 공부라 아니라 삼위일체 안에서 사는 생명, 삶을 배웠고 다양한 문화들의 부요함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요구에 개방하도록 초대받았고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지니려고 하는 우리의 옛 인간을 따르지 않고 친교와 자신을 헌신하는데 열려 있는 새 인간에게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기 안에서 갇혀 사는 개인에서 세례성사의 새 생명과 함께 받은 친교의 선물을 사는 관계를 뛰어가는 인격체(persona)로 살아가라는 초대를 느꼈습니다.

모든 여행은 저희에게 생명의 새로움을 줍니다. 7 월 6 일부터 11 일까지 아씨시에서 “성령 안에서 생명의 영감들: 개인에서 인격체로” 주제로 열린 학회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교회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하는 교회적 체험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공동체 생활, 사목 생활을 삼위일체의 친교의 빛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의 통합적인 비전, 즉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전승의 통합 안에서 새로운 시선으로 심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주었습니다.

여행은 거의 본적이 없거나 조금 알고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7 월 12 일 주일 저희는 알바노 모원을 방문했습니다. 자신의 지역구에 계신 선교사 수녀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만 알고 있었던 초기의 어린 수녀님들을 처음 뵈는 수녀님들은 아주 강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어린 수녀님들을 방문했던 저희들에게는(이태리 관구 소속 수녀님들) 그런 수녀님들의 모습이 놀라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수도회의 기원이 되는 장소들을 방문 할 수 있고 초창기 수녀님들을 알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부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말해주는 기쁨 가득한 얼굴들 안에서 우리 각자를 돌보고 계신 선한 목자 예수님의 충실하심을 다시금 인식할 수 있었고 사랑으로 봉헌한 삶에 대한 증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무엇이 요구됩니까? 우리 역시 하느님의 성실함을 다시 발견하고 성령께서 부드럽게 인도하시도록 우리를 내어 맡기면서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내어 줄 수 있도록 기도 안에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며칠 후면 복자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님의 동반 하에 알바로 성지순례를 떠날 것입니다. 저희가 매일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의 성소의 선물을 기억하고 보존하면서 새순이 돋고 우리 각자, 우리

수도회 전체, 바오로 가족 수도회와 세상에서 순례하는 교회를 통해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대로 맡길 수 있도록 알베리오네 신부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그룹을 대표해서

sr Irene Tollini